

분류	주일강단 2부
제목	야곱의 승리
성경	창31:17-42
일시	2023년 8월 13일
장소	성암교회
강사	정영신 목사 (정리: 김홍구 목사)
주제어	

♣성경말씀(창세기 31:17-42)

♣ 녹취 자료 ♣

서론)

1)롬8:31-39,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

하나님 자녀는 절대 망할 수 없는 신분인 것이다. 본문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믿으시길 바란다. 이 세상에 그 무엇도 하나님의 자녀를 막을 수 없다. 끈을 자도 없고, 끈을 수 없는 것이다.

2)환경과 문제 가운데 불신앙을 가지고 서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이 문제다.

3)언약에 확신 가진 자는 이 세상에서 실패할 수 없음을 성경을 통해 많은 증거를 볼 수 있다.

4명의 족장을 통해 언약의 여정을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고 있다.

4)세상을 살다보면 많은 문제 가운데 고민하고, 갈등할 수 있다.

문제 앞에 불신앙 이전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야 한다. 염려와 불신앙은 사탄의 통로가 되는 것이다. 넘어짐과 실패의 통로가 되는 것이다.

5)라반이 야곱을 죽이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했지만 결국은 야곱이 승리했다.

승리하는 신분인데 계속 어려움을 당한다. 인본주의를 썼기 때문이다. 이것이 사탄의 통로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했다. 그 틈을 사탄이 들어오는 것이다.

6)아브라함은 블레셋 왕인 아비멜렉과 견줄만한 아무런 힘과 조직이 없었다.

그래서 먼저 찾아와 화친을 맺게 된 것이다. 이유는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이다. 아니면 다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7)언약을 붙잡으면 승리한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다.

언약 붙잡은 다윗을 죽일 수 없는 것이다. 수천 명의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은 다윗을 죽일 수 없는 것이다. 언약 붙잡은 세 친구를 죽일 수 없는 것이다. 언약한 자가 승리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었다.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았다는 것이다. 언약 안에 하나님의 모든 스케줄이 다 들어있는 것이다. 언약 붙잡은 자를 하나님이 관심이 있는 것이다.

8)언약을 놓친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 스테반이 유대인에게 돌에 맞아 죽었다.

그렇다고 실패했는가? 죽었다고 실패한 것이 아니다.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의 죽음이 비참함인가? 실패인가? 아니다. 그들 때문에 우상과 싸울 수 있었

고,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9)언약을 붙잡은 사람은 살아도 축복이요, 승리요, 죽어도 축복이요, 승리가 되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언약 때문에 죽는다면 어마한 하나님의 역사와 승리가 일어나는 것이다.

본론)

1. 야곱의 승리

1)창29:14-15, 창31:38, 31:41 라반이 20년 동안 야곱을 이용했다.

이익을 얻으려고 하고, 심지어 야곱을 죽이려고 했다. 그러나 결국은 야곱이 승리한 것이다.

(1)14년은 딸들과 하녀들을 이용해서, 특히 라헬을 이용해서,6년 동안은 재산을 통해서 야곱을 이용

(2)왜 야곱을 이용했는가?

30절에 야곱이 나올 때 흠쳐 나온 드라빔 때문이다.

(3)이 드라빔이 언약 밖에서는 장자의 축복을 받는 의미가 있었다.

(4)라반은 기복적인 것 때문에, 단순히 육신적인 복, 사람을 통해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야곱을 이용

2)하나님 자녀이면서도 언약이 분명치 않다면 평생 사단의 종노릇하면서 살 수 밖에 없다.

(1)불쌍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된다. 언약의 비밀, 언약 안의 축복을 모르기 때문이다.

(2)자신은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단에게 속는 대표적인 것 중의 하나가 사람을 만나면 불신앙적인 이야기 하면서 힘을 빼다.

자꾸 불신앙이 들어오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다른 얘기를 하면 안 된다. 나도 모르게 사탄의 종노릇하게 되기 때문이다.

(3)사실적인 이야기를 한다 해도 신앙적으로 힘을 주는 말을 해야 한다.

우리가 말을 할 때는 생각하면서 해야 한다.

3)큰일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다.

큰 문제가 와도 하나님의 능력은 더 큰 것이다.

(1)문제가 문제가 아니다. 염려하면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기도하라.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붙잡고 기도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좋은 것만 붙잡으려고 한다. 문제, 어려움 오면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한다.

(2)라반은 평생 야곱을 붙잡고 종살이 시키려고 했다. 이것이 사단의 계략이다.

일도 얼마나 잘하고 상당히 부를 축적할 정도로 야곱이 일을 잘 감당했다. 이걸 착취한 것이다. 우리에게 계속 문제가 온다면 사탄의 계략을 놓치면 안 된다.

2. 언약을 붙잡고, 언약 안에 있었던 축복이 어떤 것인가? 를 알아야 한다.

1)창28:10-22 벤엘의 축복을 야곱에게 주신 것이다.

(1)'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것이 벤엘의 축복이다.

야곱이 받은 가장 중요한 축복이 이것이다. 야곱은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도망자이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는 것만큼 이만큼 축복이 어디 있겠는가?

(2)언약 안에 있는 축복이 바로 ‘임마누엘의 축복’이다.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신 것은 임마누엘이 이유다.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고 하셨다.

(3)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들에게 임마누엘의 축복이 있음을 알아야 믿어라

성령이 영원토록 함께 하는 것이 임마누엘의 축복이요 이만큼 큰 축복이 없고,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이다. 주관자, 창조주, 지존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2)창29:9-13 하나님이 야곱을 순간순간 세밀하게 인도하는 축복을 주셨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불특정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하와이가 여의도의 3배가 되는 땅이 불에 탔다. 우리가 이런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알겠는가? 야곱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렸기 때문에 형통의 복이 온 것이다.

(1)창29:31-30:24 언약대로 자녀의 축복을 주셨고

(2)창30:25-31 물질의 축복을 주셨다. 이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다.

(3)창31:24 하나님이 라반에게 현몽하여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 간 말하지 말라 하셨다.

깨닫지 못하는 라반에게 하나님이 현몽으로 꿈으로 나타나서 말씀하신 것이다.

(4)창31:29 라반이 이 사실을 야곱에게 간증하고 있다.

하나님이 어젯밤에 이렇게 얘기하심을 말한 것이다.

(5)언약을 붙잡은 야곱, 언약 안에 있는 야곱에게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인도하는 그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우리에게 이것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 비밀을 누리는 나는 사탄에게, 어떤 계략에서도 이길 수밖에 없는 것이다.

3)하나님은 언약을 붙잡은 자에게 ‘이스라엘’의 승리를 주신다.

(1)이스라엘-‘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 축복을 주신다.

언약 붙잡은 자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마음에 통과하는 자,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 기도응답을 받았다는 것이다. 씨름했다, 하나님을 이겼다고 성경은 표현한다.

(2)롬8:32 언약과 함께 모든 축복을 다 주신다.

확인하고 승리하기를 바란다.

3.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신 이유

1)야곱이 창3:15의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언약 사는 생명의 언약을 붙잡은 것이다. 아버지, 할아버지에게 받은 언약이다. 우리의 후손에게 언약의 바통이 전달되어야 한다. 짬뽕이 되면 안

된다. 변질되면 안 된다. 정확하게 후대에게 내려가야 한다.

2)창25:19-26 부모에게서 언약을 물려받았고

3)창25:27-34 야곱이 언약을 확신했다.

들은 언약을 체험해야 한다.

4)창28:10-22 실제적으로 언약을 체험하고, 언약을 누리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사람은 언약 붙잡은 자를 통하여 움직이시게 되어 있는 것이다. 교회 안에 세계사가 있어야 하는데 세계사 안에 교회가 있으니까 안 보이는 것이다. 교회사에서 세계사를 보는 것이다. 하나님은 교회사를 통하여 이루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요 증거인 것이다. 믿는 자의 염려는 자꾸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기도해라. 우리가 할 것은 기도밖에 없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미 다 주셨고 우리는 기도밖에 없는 것이다. 언약 붙잡은 자들이 할 것은 기도뿐이다.

결론)

1)정말 우리가 언약의 사람인지? 확인하라 언약 붙잡고 있는지 확인해라.

2)그 다음에 언약 안에서 우리가 언약을 확신하고 있는지?

언약의 사람이 맞다면 이것이 맞는가 확인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맞는가? 땅 끝까지 복음 전하는 것이 맞는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이 맞는가 확인하는 것이다.

3)어떻게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돌아보아야 한다.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아야 한다. 우리의 미래는 장밋빛이다. 성경은 고도의 때가 온다고 했다. 그것은 믿지 않는 자에게 일어나는 것이다. 믿는 자에게는 장밋빛이다.

4)언약을 확신한 사람에게 정말로 나타나는 신앙의 모습이 바로 기도이다.

우리는 어떻게든 기도의 비밀을 놓치면 안 된다.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은 기도다. 가장 첫 번째 신앙인의 모습은 기도다. 이 비밀을 누림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린다.